

순천시, 전남 최초 소아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미즈·현대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3명과 손잡아 두 병원 연합 형태 운영...오는 12월부터 365일 진료 시작

순천시는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협약을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미즈여성아동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이 참여하고 13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져 소아과 새벽 출석 등 아이들의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소아 전문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순천시에서는 지정신청서를 각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전남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전남동부권역 의료시스템의 실질적 중심에 있는 순천은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소아환자들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수십 차례 미즈여성아동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365일 야간까지 진료할 수 있는 두 병원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협약 체결 당사자인 두

병원이 연합 운영하는 형태로 오는 12월부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23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료하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바람인 소아 야간진료를 실시하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최소한 구급차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내 병원과 협업해 하나의 대학병원처럼 움직이는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전남 여러 지역에서는 소아 야간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처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순천시가 유일하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2023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2일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 4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성군은 채소, 과수, 축산 소득작물 3개 분야 26개소에 사업비 22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평가회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추진한 시범사업 중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시설 과수 디지털 복합 방제시스템 운영 시범, △뒤영벌 생산 고효율화 스마트 사육시설 기술 시범 사업장을 참석자들과 함께 방문해 직접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실용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이동해 ICT 기자재, 농업용 로봇, 에너지 절감 모델, 온실 관리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기술을 안내받아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 김 모 씨는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의 편의성을 체험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평가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변화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직면한 현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업인과 보성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명순기자

광양시, 9일까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응급관리요원 모집

광양노인복지관·광양실버주택복지관 영양사, 조리사, 환경미화 모집

광양시는 오는 9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생활지원사 100명,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2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응급관리요원 3명), 광양노인복지관(조리사 2명, 환경미화 1명), 광양실버주택복지관(영양사 1명, 환경미화 1명) 총 1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하게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화 전담사회복지사는 1종 보통 운전면허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경력자로 우울형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 상담과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지원사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안전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별 모집 인원은 광양읍(30명), 봉강면(4명), 옥동면(8명), 옥곡면(8명), 진상면(8명), 진월면(8명), 다압면(4명), 골약동(4명), 중마동(12명), 광영동(7명), 태인동(5명), 금호동(2명)으로 지역별 1곳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대상자 가정에 대내장비(화재감지기, 응급출호기, 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 확인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응급관리요원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

전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대내 장비 점검 및 관리,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시스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뉴스/소식→고시/공고→공고] 또는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관팀(☎061-797-2651, 2649, 499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따스한 마음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기존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공정보고회 내년 4월 준공 목표... 160억 원 투자 3.6ha 온실 조성

고흥군은 지난 1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공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남도·고흥군을 포함해 우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와 시행사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종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하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관내 거주하는 기존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총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일원에 3.6ha 규모의 연동형 비닐온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온실은 총 6구획으로 1묘 2~3인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된 기존농업인 총 6팀을 선발해 최대 3년간 임대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내년 초에 공고할 예정이다.
김태호 스마트팜사업소장은 "군민이 큰



기대를 하는 사업인 만큼 시공업체에 작업근로자의 안전과 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